

보도시점 2026.4.28.(화) 11:00
< 4.29.(수) 조간 >

배포 2026. 4. 28.(화)

반도체 수출통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한다

- 제1회 「민-관 무역안보 대화」 개최, 반도체·AI·양자 기업과 밀착 논의
- 반도체 업계와 현장 소통창구 신설, 국익 최우선으로 무역안보 현안 대응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4월 28일(화) 14시, 무역안보관리원(서울 강남구)에서 반도체·인공지능·양자 분야 10개 주요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1회 「민-관 무역안보 대화」를 개최하였다.

첨단기술 패권 경쟁과 민간용 기술의 군사용도 활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국·중국·EU 등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조치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기계·항공우주 등 우리 주력산업 수출기업이 각국의 수출통제 및 제재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하기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또한, 수출통제를 위반한 경우 수출제한, 과태료뿐만 아니라 제재대상 등재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최근 미국 내 반도체 수출통제 입법동향, 중국의 공급망 안전규정 발표 등 주요국이 추진 중인 경제안보 정책과 함께, 국제수출통제 체제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반도체·인공지능·양자 관련 수출통제 안건 등 무역안보 현안을 참여 기업에게 설명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번 공식 민-관 대화 채널 마련으로, 그간 애로사항 제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정부-업계 간 소통이 수출통제 국제협상, 제도개선 논의의 장으로 심화 및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우리 무역안보 정책을 실효성있게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깊이있는 소통이 관건”이라며, “급변하는 세계 무역안보 환경 변화흐름을 기업과 함께 호흡하며 읽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함으로써, 반도체 등 우리 수출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산업부는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무역안보 핫라인’을 유관 협회와 구축하고, 기계·로봇·자동차 등 우리 주력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민-관 무역안보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승혜 (044-203-4830)
		담당자	사무관	박정진 (044-203-4829)
			사무관	유세희 (044-203-4838)

1. 추진 배경

- 첨단기술 발전, 민-군 협력 가속 등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에 기반한 무역안보 정책 수립 요구
- '25.10월 출범한 「산업안보 공급망 TF」(단장:산업부 차관)의 일환으로 무역안보에 특화된 「민-관 무역안보 대화」(주재:산업자원안보실장) 추진

2. 행사 개요

- (주제) 반도체·AI·양자 기업과 ▲주요국(미·중) 무역안보 정책동향 공유, ▲국제수출통제체제(바세나르) 최신안건 대응, ▲기업별 비공개 면담
- (일시·장소) '26.4.28.(화) 14:00 - 16:00, 무역안보관리원 교육센터
- (참석) 산업부, 분야별 기업 및 협·단체 * 1회 : 첨단(반도체·AI·양자) 분야
 - (정부) 산업자원안보실장,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장, 반도체과장
 - (기업) 반도체, 반도체장비, AI, 양자 관련 10개사
 - (협·단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양자산업협회,

< 세부 일정 >

시간		프로그램	비고
14:00 ~ 14:05	(5')	인사말	산업자원안보실장
14:05 ~ 14:20	(15')	◆ 「민-관 무역안보 대화」 소개 ◆ 주요국(美·中) 무역안보 정책 동향 ◆ 바세나르체제 동향 브리핑	무역안보정책과
14:20 ~ 14:30	(10')	Q&A 및 건의청취	
14:30 ~ 15:50	(80')	기업별 비공개 면담	기업당 20분(순차)
15:50 ~ 16:00	(10')	정리 및 폐회	